

##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의 의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mbolicity of *Camellia japonica* L.

이 원 호, 김 동 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Lee Won-Ho, Kim Dong-hyun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전시문, 민요, 시, 노래, 민속 및 신앙 등에 관한 문헌자료들의 해석을 통하여 동백나무가 우리 민족에 가지는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동백나무는 청렴과 고고함, 애절한 사랑, 봄을 맞이하는 연인들의 설렘 등을 상징하며 다양한 기능성 및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우리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 I. 서론

동백나무의 꽃은 붉은 색으로 이른 봄에 피는데 꽃이 피우는 시기에 따라 춘백(春柏), 추백(秋柏), 동백(冬柏)이라 부르기도 한다. 문일평의 『화하만필(花下漫筆)』에서는 ‘동백은 속명이요, 원명은 산다(山茶)이니 산다란 동백 잎이 차나무와 비슷하여 생긴 이름이다.’라고 기술하였다. 또한 개화 및 생육 장소에 의해 바다에 피는 붉은 꽃이라 하여 일명 해홍화(海紅花)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문헌에서 동백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고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이다. 조선시대 강희안의 『양화소록』에서 화목구품 중 4품으로 등급을 분류하였으며, 화품평론에서는 선풍도골(仙風道骨)로 속세를 떠난 도인의 고아한 풍채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화암수록』의 화목구등품제에서는 3등으로 분류하고 선우(仙友)라고 칭하였으며, 동백은 청수한 꽃을 지니고 또 빛나고 윤택한 사시(四時)의 잎을 곁하였으니 화림(花林) 중에 뛰어나고 복을 갖춘 것이라 하였다[1].

고문헌에 나타난 조경식물에 대한 연구로는 상징성이나 의미에 관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며[2] 최근 고전시문과 회화, 한·중·일의 고전시가에 나타난 특성 등의 연구로는 오동나무[3], 연[4], 파초[5]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동백나무에 관련된 연구는 식물분야에 편중된 상황이며, 예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동백나무의 의미에 관한 변천 및 분석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까지의 동백나무에 관한 문헌자료와 기록 등을 분석하여 우리 민족에 동백나무에 내재된 의미를 고찰하였다.

## 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동백나무를 주제로 한 문헌자료와 기록 등을 고찰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문헌 고찰을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기록 및 고전시문, 민요, 시, 노래, 민속 및 신앙 등에 관한 각종 문헌자료 중 동백나무가 우리 민족의 정서와 관련지어 설명되는 내용을 추출, 활용하였다[6]. 이러한 자료들의 해석을 통하여 동백나무가 지닌 의미를 고찰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고전시문

동백을 주제로 한 문헌자료는 소수이고, 동백나무가 가사에 등장하는 경우도 15건에 불과하다. 이는 동백나무의 가치가 저평가된 것이 아니라 주로 도서지방에 생립되어 동백나무를 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동백꽃을 볼 수 있었던 지방에서는 이 꽃을 극찬하고 있는 글을 흔히 볼 수 있다[1]. 조선시대 이육(李陸)이 『청과극담(靑坡劇談)』에서의 ‘눈속의 푸른 잎이며 붉은 꽃잎이 화려하고, 동남에 큰바다가 가로놓여 뛰어난 절경은 비길 데 없다.’고 하였으며, 목대흥(睦大興)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서는 ‘꽃과 잎 겹키 어려움 뽕과 이빨 마찬가지, 이 세상에 이 꽃과 같은 것은 드물리라’고 하며 꽃과 잎이 다 아름다운 동백나무를 예찬하는 대목도 위와 같은 사례이다.

조선 초기에는 안평대군이 제시한 ‘설중동백(雪中冬柏)’, ‘반개산다(半開山茶)’의 시제를 이어받아 시를 지었기 때문에 동백을 소재로 한 작품이 이어지고 있다. 성삼문의 「설중동백(雪中冬柏)」과 신숙주의 「반개산다(半開山茶)」는 동백꽃이 지나는 고고한 모습에 대한 찬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탁영의 「설중동백(雪中冬柏)」에서는 동백나무의 푸른 잎과 겨울에 피어나는 동백꽃에 비유하여 청렴과 지조를 강조하였다.

또한 윤휴의 『백호전서(白湖全書)』는 대나무, 국화, 전송과 노송을 동백과 함께 세한(歲寒)의 절개가 있어 한서(寒暑)에 따라 지조를 변치 않는 다 하여 ‘육우(六友)’라 칭하였으며, 김성일의 『학봉전집(鶴峯全集)』에서는 눈 오는 밤의 동백꽃에 대한 고고함과 기개를 찬양하였다.

### 2. 민요

동백을 노래한 민요는 동백나무의 분포 특성 상 동백꽃 피는 섬이나 바닷가에서 자란 처녀의 애환 어린 노래가 대부분이다. 울릉도 민요의 ‘동백꽃 필 무렵 다시 오 마 하더니 꽃지고 열매 딸 때도 오지를 않네’라는 가사와, 정선 아리랑의 가사를 살펴보면 동백꽃의 개화를 기약하며 사모하는 님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그리운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남도민요인 동백타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백꽃의 아름다움과 쓰임새 등 동백을 예찬하는 동시에 연인들의 설레임도 함께 노래하고 있다. 특히 동백나무 씨에서 추출한 동백기름은 여인들이 머리를 다듬을 적에 이용하는 재료로서 단오요, 밀양아리랑 등 연인들의 심경을 노래하는 가사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 3. 시

현대시에서 동백꽃을 읊은 시는 정훈의 시 「동백」에서의 '차가울사록 사모치는 정화(情火)', 유치환의 시 「동백꽃」의 '청춘의 피꽃' 등으로 표현되어 붉은 동백꽃처럼 피맺힌 가슴의 한이나 정열적인 사랑을 표현했다.

동백꽃이 질 때에는 꽃잎이 시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꽃송이 전체가 빠져 떨어진다. 또한 떨어진 꽃송이는 모두 하늘로 향하고 있다. 문인수의 시 「채와 북 사이, 동백 진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소재로 하여 '미친 향기의 북채', '선혈의 천둥' 등으로 비유하였으며, 「동백」에서 에 절화에 가까운 낙화 현상을 참수(斬首)에 비유하여 '붉디 붉디 내 청춘'이라는 표현으로 인생무상을 나타내었다. 문정희의 시 「동백」에서는 '가장 눈부신 꽃은 가장 눈부신 소멸의 다른 이름'이라 하였으며, 「동백꽃」에서는 '가장 눈부신 순간에 스스로 목을 꺾는 동백꽃'으로 표현하는 등 극적인 아름다움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홍운숙의 시 「선운사 절경」에서는 동백꽃을 소재로 한 타 문학작품과 달리 다간으로 성장하는 동백나무의 목질부를 포함한 동백나무 전체의 이미지를 '새하얀 뿔의 시슴 한 마리', 고창 선운사 동백나무 숲의 동백나무 군락을 '시슴의 무리로 표현하였으며, 한밤의 선운사 절경을 '동해바다'에 비유하며, 동백꽃을 산호에 빛대어 천상의 선경(仙境)이라 표현하였다.

### 4. 노래

동백나무를 소재로 한 노래는 대부분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과 애절함 등의 연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한나의 『동백섬 그사람』, 김세레나의 『울릉도 사랑』의 가사를 살펴보면 '꽃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내리는데 돌아 올 줄 모르는 돌아올 줄 모르는 첫사랑', '울릉도 동백보다 쉼쉴 정을 버리고 가신임은 오시지 않네.' 등의 대목에서 섬이라는 위치적 한계에 의해 정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여인들의 애환과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자신을 동백꽃과 동일시하여 가신 님이 돌아오기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송창식의 『선운사』는 떠나려는 님을 향한 슬픈 마음을 떨어지는 동백꽃에 비유하여 붙잡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였다.

### 5. 민속 및 신앙

예로부터 남쪽 도서지방의 주민들은 동백나무의 가치를 혼례상에 차려놓고 신랑신부의 무병장수와 굳은 약속의 징표로 삼아왔다. 이는 초례상 위에 놓인 진녹색의 동백나무 가지에 동백의 푸르름처럼 번치 않으며 영화로우를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 동백나무 꽃이 골고루 잘 피어나면 좋은 시절이 올 것이고, 북쪽에 꽃이 많이 피면 비가 많이 오며, 남쪽은 흉년, 동쪽과 서쪽에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sup>8)</sup>. 또한 동백나무 고목은 기형적인 수

형과 온화하고 조용한 느낌을 준다고 하여, 특히 거제 외간리 동백나무(경남기념물 111호)는 마을의 수호목으로 보호되고 있고, 완도군 장좌리 장섬의 동백나무 숲은 삼별초 때의 송징 장군을 마을 수호신으로 하여 매년 제를 지내고 있으며, 사천 마량리 동백나무 숲에는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당을 조성하여 매년 음력 초하루날과 초사흘날에 걸쳐 풍어제가 치루어지는 등 오래된 동백나무숲을 당숲으로 보존하고 있다.

또한 동백꽃의 낙화현상에 대하여 병을 일으키는 역신이 동백꽃과 함께 떨어져 죽는다고 여겼다. 이러한 생태적 특성과 붉은 꽃잎의 색으로 인하여 벽사(辟邪)의 상징이었으며, 많은 열매를 다는 까닭에 다자다남(多子多男)을 상징하고 나아가 여자의 임신을 돕는 것으로 여겼다.

### 6. 회화

예로부터 전해진 회화에서 등장하는 동백나무를 살펴보면 대부분 화조도에 새와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십장생도나 지수도에 표현되어 장수와 번영을 기원하기도 하였으며, 신흥사 대광전의 공포 사이의 포벽에서도 동백새와 함께 동백나무가 그려진 벽화는 사찰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되었다.

## IV. 고찰

동백나무가 우리 민족에 가지는 의미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완상의 의미로써 상록수이며, 10월 이후 동백꽃이 개화하여 겨울을 나는 동백나무의 형태적 특성에 의한 장수를 상징하며, 비슷한 시기에 일제히 낙화하는 생태적 특성에 기인하여 청렴과 고고함, 극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였다.

둘째, 동백꽃이 가지는 진홍빛 색채는 한이나 정열적인 사랑을 표현하였다.

셋째, 실용적 의미로써 동백나무의 씨에서 짠 동백기름은 머릿기름으로 했던 화장유로 애용되었으며, 동백꽃은 약재 및 차의 재료로도 이용되었다.

넷째, 신앙적 의미로써 당목 및 당숲, 벽사의 의미와 길흉을 점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또한 많은 열매가 결실하는 생태적 특성은 다자다남을 상징하며 나아가 여자의 임신을 돕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동백나무는 예로부터 다양한 계층이 애호하여 왔으며, 여러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수종이라 할 수 있다.

## ■ 참고 문헌 ■

- [1]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3), 이상희, 1998
- [2] 조경식물의 상징성에 관한 기초연구, 심우경, 1989
- [3] 한·중 고전시가에 나타난 오동나무 이미지 비교, 유병래, 2009
- [4] 고전 시문과 회화를 통해 본 연의 활용과 애호 행태, 홍형순, 2011
- [5] 고전 시문을 통해 본 파초의 식재 의미와 설계용도, 홍형순, 2011
- [6] 한국고전종합데이터베이스 <http://db.itkc.or.kr>
- [7] 우리 나무의 세계(1), 박상진, 2011
- [8]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정보포털